

순천시, 전남 첫 야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미즈·현대아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3명 12월부터 진료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천시가 소아 야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운영에 들어간다.

전남 시군에서 소아 야간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 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순천시가 유일하다.

순천시에 따르면 미즈여성아동병원과 현대여성아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3명이 오는 12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진료를 시작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소아 전문 치료를 기피하고 있는 의료 현실을 감안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지정신청서를 각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전남도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제출했다.

전남 동부권역 의료시스템의 실질적 중심에 있는 순천은 질병으로부터 취약한 소아 환자들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미즈여성아동병원과 현대여성아동병원 병원장 등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365일 야간까지 진료할 수 있는 두 병원의 협업시스템을 마련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협약 체결 당사자인 두 병원이 연합 운영하는 형태로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하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바람인 소아 야간진료를 실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응급실 뺨방이 사건 등 최소한 구급차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관내 병의원과 협업해 하나의 대학병원처럼 움직이는 지역안결형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전남 최초 소아 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업무 협약이 순천시청에서 열렸다. 왼쪽두번째부터 신진옥 미즈여성아동병원대표와노관규 순천시장, 운혜설 현대여성아동병원 대표. <순천시 제공>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전 문수동 여수농협 건물로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우화)이 문수동 여수농협 2층 사무실로 이전했다.

공단은 사무실 노후화와 사무공간 부족, 문서고 미비 등의 사유로 이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무실은 청렴감사팀, 기획안전팀, 경영지원팀, 교통휴양시설팀 등 4개 팀이 배치돼 직원 30여 명이 근무한다.

김우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사무실 이전으로 업무 편의성과 시민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따뜻한 가치와 섬세한 서비스로 시민에게 든든함을 주는 도시관리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10월 공사로 출범해 2017년 10월 공단으로 변경됐다. 2008년 고소동 KT 빌딩, 2013년 돌산청사, 2017년 문수동 새순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유자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 가능성 봤다

3일간 10만여명 방문 ‘역대 최대’...경제적 파급효과 100억 중국·유럽 수출협약 성과...체험·편의시설 등 콘텐츠 보강

고흥군 대표 축제인 ‘제3회 고흥유자축제’가 역대 최대의 방문객 기록을 세우면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고흥군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린 고흥유자축제는 10만여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각종 체험 버스, 유자 판매 등 120여 개의 부스와 먹거리에도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100억 원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돈이 되는 축제가 되었다는 평가다.

특히 축제 첫날 주말대에서는 고흥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 칭다오 하이리닝플라카 기술 유한 공사와 농수산물 500만 달러 수출협약을 맺었으며, 유럽 세계적인 맥주 기업과 고흥 유자를 원재료로

유자맥주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 또한 이루어져, 고흥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했다.

이번 축제는 개막식에서 군수 기념사를 비롯해 내빈들의 공식 축사를 과감히 없애 새 패러다임의 특별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주말대 앞 관람석을 축제의 주인공인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내어주어 획기적인 축제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해와 확연히 달라진 축제장 구성과 고객 중심의 편의시설, 유자 체험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유자 농가 400여 명이 참여한 유자C 퍼레이드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또 유자밭을 화려하게 수놓은 포토존과 야간경관을 12만 평에 조성한 ‘유자적 유자 탐방로’에서는 유자 캠핑과 유자 마인공연 등이 어우러지면서 축제 개막전부터 방문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으며, 1000대의 개막 드론쇼 및 멀티미디어 불꽃쇼 등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향토음식관은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개선해 바가지 없는 저렴한 가격과 더할 나위 없는 맛, 생선숯불구이, 유자 한우 등 최고의 먹거리에 축제기간 내 연일 재료가 소진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군은 축제가 끝나더라도 유자밭 경관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야간 탐방로는 11월 말까지 그대로 유지해 놓을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 유자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고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광양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 모집

전남·광주 외 거주자 대상 7박8일 일정...일 최대 15만원 지원

광양시가 현지인처럼 살아가는 전남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광양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광양에서 7박 8일 체류여행 희망자로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전남·광주 외 거주자이며 SNS 운영에 능통해야 한다.

참가자에게는 7박 8일 여행기간 동안 숙박비, 교통비, 식비, 체험활동비 등이 1일 최대 15만원이 지원되며 여행후기, 광양수업명소 발굴 등의 과제가 주어진다.

참가 희망자는 신청서 여행계획서 등을 다음달 6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여행자가, 유튜버, 파워블로거 등 인플루언서 캠프, 자선거투어 등 특별한 콘셉트 여행자

를 우대 선정하는 한편 홍보 과제를 부여해 광양관광 브랜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만족도조사를 통해 관광지 불편 및 개선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강화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진정한 여행은 잠시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처럼 머물고 살아보는 것”이며 “광양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와 특별한 콘셉트를 추구하는 여행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에서 한달 여행하기 프로젝트를 통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의 숨은 매력을 적극 홍보해 관광객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지방소멸 대응기금 112억 확보...투자계획 A등급

교육생태계·청년 자립 기반 조성 등 ‘돌아오는 곡성’ 박차

곡성군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112억원을 확보했다.

곡성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12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 89개를 중심으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

획서를 평가해 4단계로 등급을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S등급 144억원, A등급 112억원, B등급 80억원, C등급 64억원이다.

곡성군은 이번 평가에 교육생태계 완성과 지역자원 연계 청년 자립 기반 조성을 목표로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 ‘스마트 청년농부 캠퍼스 조성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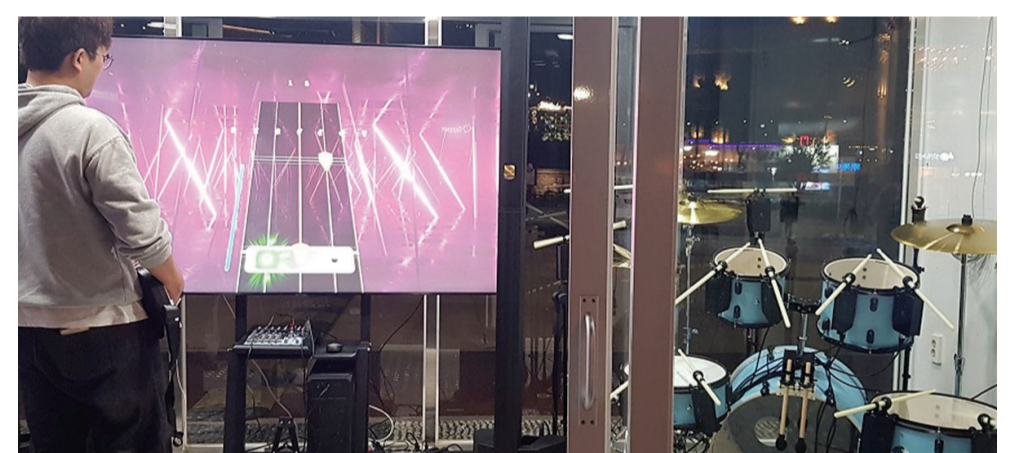
또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가족형 워크빌리지

조성’ ‘곡성 유학마을 조성사업’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곡성형 청년 활력마을 만들기사업’ 등을 제출했다.

곡성군은 지난해 B등급을 받아 27개년 사업비로 총 168억원을 확보해 ‘도담도담마을’로 이어지는 곡성 유학 완성,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기존사업은 고도화하고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돌아오는 곡성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수시 종포해양공원 야외 공연장에 조성된 AI 뮤직 체험존.

여수 종포해양공원 ‘AI 뮤직 체험존’ 눈길

밴드·리듬 액션 게임 등 제공

여수 종포해양공원 야외 공연장에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인 ‘AI(인공지능) 뮤직 체험존’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여수시와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 기업 간 협업실증사업의 일환인 ‘AI 뮤직체험존’은 4차 산업시대 AIoT 인공지능과 개인이 컬래버로 감성 연주를 할 수 있는 콘텐츠다.

방문객은 버스킹과 더불어 새로운 음악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

통유리로 된 12평 부스 2개에 인공지능 드럼·피아노, 사이니지 및 악기와 음향시스템을 구축해

인공지능 밴드·리듬 액션 게임 등을 제공한다.

방문객이 컴퓨터와 키오스크를 활용해 AI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로보틱스 악기 현장 연주와 음악으로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AI밴드와 지역아트 협연 등 디퍼닝을 통한 AI 창작곡 제작과 특별한 날 이벤트 마련과 더불어 지역 내 아동과 학생들의 체험 및 교육장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김상욱 여수시 관광마케팅팀장은 “여수 밤바다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로 마련했다”며 “낭만과 힐링뿐 아니라 첨단 엔터테인먼트를 체험하는 재미도 경험해 보시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얼음 위 맨발’ 기록 또 깼어요... ‘4시간 35분’

세계신 보유자 조승환, 독일서 퍼포먼스 기후 위기 알리고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얼음 위에 오래 서 있기 세계 기록 보유자인 조승환씨가 자신이 세운 기록을 갈아치웠다.

광양시에 따르면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은 세계생활체육연맹 바우만 총재 초청으로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신기록에 도전해 4시간 35분을 기록하며 도전에 성공했다.

조씨는 지난날 7일 광양시 ‘제19회 광양 전통 숯불구이’ 축제장에서 ‘4시간 30분’의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한 달 만에 해외에서 다시 그 기록을 넘어섰다.

조씨는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퍼포먼스를 통해 각국 대표들이 보는 앞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EXPO) 유치를 응원하고, 전 세계에 지구온난화로 심각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광양 출신으로 광양시 홍보대사, 고흥군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조승환 씨는 국제환경운동가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

빙하를 뜻하는 ‘얼음’ 위에서 기후 온난화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를 표현하는 ‘맨발’로 오래 서 있는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다.

도전에 성공한 조승환씨는 “퍼포먼스를 통해 전 세계에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도전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오늘 도전은 각국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30부산엑스포 유치 기원의 뜻도 함께 알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얼음 위 맨발로 오래 서 있기’ 신기록 도전에 성공한 조승환 씨. <광양시 제공>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봄 조성 사진·영상 공모

전 국민 대상 21~30일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봄 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수 섬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는 최근 1년 이내(2022년 12월~2023년 11월) 여수 365개 섬의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 생활상, 해상교량을 촬영한 작품을 응모하면 된다.

사진과 영상 두 개 분야로 진행되며 규격은 파일형식(jpg·mp4)으로 해상도 등 응모 조건을 갖춰야 한다. 1인당 사진은 2점까지, 영상은 1점

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두 개 분야 동시 응모도 가능하다.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21일~30일 작품 파일과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진·영상전문가와 함께 심사 후 우수작품 31점을 선정해 총 상금 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공모전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섬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